

전공교육과 연계한 봉사학습(SERVICE-LEARNING)의 효과 연구 : 사회복지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 영

(이화여자대학교)

박 형 원

(서울신학대학교)

김 주 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요 약]

대학교육에 봉사활동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봉사학습(SERVICE-LEARNING)의 개념을 사회복지교육에 적용한 효과를 고찰하였다. 가족복지론 교과 수업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면서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 이타성, 사회적 책임의 변화를 양적연구로 분석하였고, 교과목 학습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으로 봉사활동 일지를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봉사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효능감, 이타성, 사회적 책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책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질적분석 결과, 가족문제에 대한 개입과정을 실제 적용해 보고, 가족복지이론에 대한 이해증진, 가족복지 전반에 대한 관심 증진,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봉사학습은 전공교육에 다양하게 적용해서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며, 학습효과를 증진하는데 유용한 교육방법이 될 것이다.

주제어 : 봉사학습, 봉사활동, 사회복지교육

*이 연구는 United Board for Higher Education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서론

봉사학습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봉사활동과는 달리 교과과정과 봉사학습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배양하도록 돕는 경험적인 교육의 한 방법으로 최근 대학교육에서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봉사학습은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사회복지학 뿐 아니라 경영학, 정치학, 교육학, 간호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대학에서 봉사학습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봉사학습의 규모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는 2000년에 48개, 2002년에 114개, 2003년에는 107개의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대학사회봉사협의회, 2003), 각 대학에서도 다양한 전공교과목과 연계하는 봉사학습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대학에서 봉사학습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행과 효과적인 학습방법개발과의 관련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주의가 확대되고 시민적 책임감이나 지역사회 연대감은 감소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대학은 전문가 양성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갖춘 사회인을 양성하도록 도전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전공분야 중에서도 사회복지학은 이론과 실천이 효과적으로 접목되는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교과목으로 현장실습과목이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지만 전체 교과과정에서 단지 1과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목에서 현장과의 실제적인 연계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교육자들은 이미 봉사학습을 보다 풍부하고 혁신적이며, 교육학적 접근의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하고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까지 봉사학습의 효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대학생의 개인적 성장 측면과 학습효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생의 개인적 성장 측면에서는 인지적·도덕적 발달(Boss, 1994; Giles and Eyley, 1994), 자기효능감 향상(Tucker and McCarthy, 2001, Williams, 2002), 사회적 책임감 고양(Boss, 1994; Kolenko, Porter, Wheatly and Colby, 1996), 참여적인 사회적 태도의 증진(Markus, Harward and King, 1993), 문제해결기술의 증진(Zlotkowski, 1998), 리더십 증진(Friedman, 1996), 의사소통기술의 증진(Tucker and McCarthy, 1998) 효과가 연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봉사학습은 교과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하고(Astin 등, 2000)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학습효과(McCluskey-Fawcett, 1992; Sugar and Livosky, 1988;)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봉사학습의 다양한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교육에서의 봉사학습의 유용성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봉사학습의 효과로 밝혀진 자기효능감, 사회적 책임, 참여적인 사회적 태도, 문제해결기술, 리더십, 의사소통기술, 학습효과 증진 등은 전문사회복지실천에서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의 기본 자질이자, IASSW와 IFSW의 '사회복지교육의 지침'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다.¹⁾ IASSW와 IFSW는 사

1) IASSW와 IFSW(2001)는 사회복지전문직이 사회변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해결, 복지증진을 위한 권한과 평등을 증진시켜야 하며, 인간의 권리와 사회정의의 원칙이 사회복지의 기본이 된다고 하였

회복지교육의 기본 요건으로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를 고찰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전문직의 핵심 지식과 가치, 기술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IASSW와 IFSW, 2004). 또한, 학생들이 습득한 사회복지의 가치, 지식, 기술들에 대하여 스스로 고찰하는 내용(self-reflexivity)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교육의 요건과 봉사학습의 효과를 연결하여 생각해 볼 때, 사회복지 전공연계 봉사학습은 사회복지의 가치, 이론과 실천의 연계 경험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가르치는데 유용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진할 수 있고, 전공교과내용의 학습효과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연구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의 봉사학습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학생의 봉사학습과 관련해서는 외국대학의 사례를 고찰하고 봉사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강미혜, 1997) 대학생 봉사학습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연구한 것(김통원·김혜란, 2001)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연구는 사후 평가와 만족도를 보이는데 그쳐 적용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봉사학습을 유용한 교육방법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다양한 전공과목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입증하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공과목 중 가족복지교과목에서 봉사학습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연계 봉사학습경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는 실천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교육의 다양한 교과목에서 대학생의 유능한 실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예비사회인을 배양하는 대학의 사회봉사기능 수행방안을 경험적으로 제안해 볼 수 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학기에 걸쳐서 사회복지전공과목에 봉사학습을 적용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봉사학습의 효과를 살펴봄, 나아가 사회복지교육에서의 봉사학습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봉사학습의 개념 및 원리

봉사학습은 자원봉사를 교과과정에 통합하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학생들의 참여와 반성적 고찰(reflection)로부터 얻어진 활동이다. Bringle과 Hatcher(1995)는 봉사학습을 가치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정의하면서 봉사학습에는 전공을 폭넓고 심도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시민적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반성고찰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National Society for Experimental Education에서는 봉사학습은

다. 또한 2004년에는 사회복지교육의 9가지 측면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였다.

학생이 의도된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주의깊게 모니터링된 봉사활동에 임하는 것이며,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적극적으로 반성고찰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Furco, 1996).

이러한 봉사학습의 형태는 봉사과 학습의 관계에 따라 “service-LEARNING”, “SERVICE-learning”, “service learning”, “SERVICE-LEARNING”의 네 유형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service learning은 봉사과 학습을 완전히 다른 개체로 보는 유형으로서 엄밀하게는 봉사학습으로 간주되기 어려우며,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은 교실에서의 학습과 현장에서의 봉사활동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소문자와 대문자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먼저, “service-LEARNING”은 교실에서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강의나 독서, 토의 등의 전통적인 교수기법을 통해 전달된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는 맥락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SERVICE-learning”은 봉사활동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수업은 학생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학습한 것을 반영해 보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형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SERVICE-LEARNING”은 봉사활동과 수업이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서 Sigmon(1994)은 이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봉사학습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SERVICE-learning”, “service-LEARNING”의 형태가 많아 기존의 사회봉사형식이나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²⁾

봉사학습의 정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봉사학습이 수행되고 있는데 성공적인 봉사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봉사학습의 기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봉사학습은 학습과 자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교육적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용하, 2002). 봉사학습은 본질적으로 내용이 교과과정의 학습목표와 관련되어야 하므로(Bringle and Hatcher, 1996)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역사회봉사의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학습으로서 교과목의 목표를 담고 있고 학생들이 지식을 학습하고 검증해 보는 매개체(McCarthy et al., 1999)가 되어야 한다. 둘째, 봉사학습은 준비-실행-반성고찰의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지작성, 소집단토의, 수업에서의 발표 등 반성고찰활동(reflection activities)을 통해 봉사활동과 수업내용이 연결될 때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Bringle and Hatcher, 1996). 구체적인 단계와 수행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준비단계(2-5주), 학습준비과정이고 ② 행동단계(6-11주)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시키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③ 반성단계(12-14주)는 주로 발표, 적용, 토론이 이루어지고 ④ 평가단계(15-16주)에서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에 대해 평가한다(Hervani and Helms, 2004). 셋째, 봉사학습은 봉사자와 봉사를 받는 개인·그룹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Sigmon(1979)은 봉사학습이 상호간 학습(reciprocal learning)을 전제로 한 경험적인 교육의 한 접근이라고 하였다.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생은 새롭게 습득한 기능과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봉사자와 봉사의 대상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책임감과 존중심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Kendall, 1990; 조용하, 2002에

2) “SERVICE-learning”의 경우, 봉사활동을 강조하여 전체 수업시간 중에서 봉사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습면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반대로 “service-LEARNING” 형태는 교육적인 학습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여 학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고 봉사활동은 수업의 일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서 재인용). 넷째, 봉사학습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학생, 지역사회 주민들, 교수, 학사관련담당자, 공무원, 지역사회 기관의 담당자 등 봉사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체계들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대학의 자원들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디자인될 때 사회적·교육적 요구가 충족될 수 있고, 관련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1997). 다섯째, 많은 전문가들이 봉사학습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여 얻은 결과는 봉사학습활동은 교과과정 목적에 통합되어 동등한 비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Howard 1998; Weigert, 1998; Eyler and Giles, 1999)는 것이다. 즉, "SERVICE-LEARNING"으로서 전공교육의 목적과 봉사활동의 목적을 조화시키고 준비-실행-반성 고찰의 순환과정에 따라 봉사과 수업의 비중을 균등하게 운영함으로써 봉사학습의 성과인 학생 개인의 성장과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공연계 봉사학습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Waterman(1997)은 봉사학습 경험을 통해 학생이 얻는 이득을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봉사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첫째, 전통적 교과과정의 학습을 강화하고, 둘째,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한다. 셋째, 시민적 책임감을 발전시키고 넷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Hesser(1995)는 11개 대학에서 16개 형태의 봉사학습을 운영하는 48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포커스집단 연구에서 봉사학습이 학생들의 학습능력, 문제해결기술, 봉사에 대한 헌신 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고, 83%는 봉사학습이 전통적인 교과과정과 비교해서 학습의 질을 강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Eyler와 Giles(1999)는 봉사학습의 효과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봉사학습에 참여하는 동안 학생들은 다른 관점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 인내를 발달시키게 된다. 둘째, 봉사학습은 학생이 기관의 수퍼바이저, 교수,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관계는 학생의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증가시키고 이는 시민의식과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팀워크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셋째,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실천력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Tucker와 McCarthy(2001)는 경영학 전공과 연계한 봉사학습의 적용연구에서 봉사학습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으로, 성취경험, 모델링, 사회적 신념, 생리적 상태가 있는데 봉사학습과 관련해서는 성취의 경험과 모델링의 요소가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Tucker and McCarthy, 2001). 봉사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이론, 지식, 기술을 적용해보면서 성취의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동료 모델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봉사학습 수행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지지하였다.

Eyler 등(1997)은 봉사학습과 이타성 및 사회적 책임감의 관련성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시민의식 척도에 있어서 봉사학습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 Myers-Lipton(1998)은 사회적, 개인적 책임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Astin과 Sax(1998)는 봉사학습 경험과 학생이 보고하는 삶의 기술,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endrick(1996)은 사회적 책임감 질문지를 사용하여 신념과 가치의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봉사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통제집단과 비교할 때 사회적 책임감, 개인적 효능감, 학습주제에 대한 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이 봉사경험과 학습의 반성고찰은 학생의 개인적 성장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봉사학습의 교과목 학습효과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개 학습관련 효과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 학생과 교수가 자기보고하는 방식, 학생들의 글이나 인터뷰를 내용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성적평가방법에서는 봉사학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한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ugar and Livosky, 1988)는 연구와 봉사학습이 수업성적과는 관련이 없다(Miller, 1994; Kendrick, 1996)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다. 둘째, 자기보고방식을 활용한 연구로 McCluskey-Fawcett(1992)는 발달심리학수업에 봉사학습을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 봉사과 학습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학생 567명에서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봉사활동이 교과서자료의 학습을 증가시켰다는 학생이 60%, 봉사가 강의자료의 학습을 증진시켰다는 학생이 60%, 지역사회봉사를 선택한 것은 가치있는 학습경험이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94%에 달한다고 하였다. Cohen과 Kinsey(1994)의 연구에서는 수업에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지역사회 접촉을 한 학생들의 약 50%가 봉사경험이 보다 효과적이고 유용한 학습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내용분석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학생 인터뷰를 내용분석한 결과, 봉사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사고능력 면에서 의미있는 향상이 있었다(Eyler and Giles, 1999)는 연구결과가 있다.

봉사학습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전공에 적용하였을 때 대체로 전통적인 형식인 이론 중심의 수업보다 학습효과가 우수하다는 것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이타성,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의사소통기술, 리더십 등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3) 사회복지전공연계 봉사학습

사회복지전공교육과 봉사학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교육의 특성과 봉사학습과의 연계 수월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교육과 봉사학습의 특성과 방향성을 살펴보면, 유사하거나 상호보완적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교육에 봉사학습을 도입하였을 때 다각적인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첫째, 사회복지전공연계 봉사학습은 사회복지관련 가치교육에 수월하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반성고찰을 거치면서 학습이 심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존엄과 사회정의의 가치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숙고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교육에서 전공연계 봉사학습은 클라이언트의 존엄, 사회정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식과 같은 기본 가치습득을 용이하게 하는 수업형태가 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전공연계 봉사학습은 이론과 실천을 연계하는데 수월하다. 기존 사회복지교육에서는 이론과 실천을 연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봉사학습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사회복지실습은 실천가로서 구체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문가로서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반면, 봉사학습은 실천가의 기술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실습은 실천가로서의 학생중심적이고, 봉사보다는 학습에 초점을 두지만 봉사학습은 수혜자와 제공자간의 균형, 봉사와 학습간의 균형을 두는 입장이다. 또한 실습은 다소 연역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이론으로부터 특수한 사실로의 접근을 통해 이론을 적용하고 확인해나가는 방식이라면, 사회복지전공연계 봉사학습은 교육과 실천적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다양한 교과목에서 봉사활동을 접목한다면 이론 및 지식을 직접적 실천을 통해 체득하고, 동시에 반성적 고찰과 학습을 통해 질 높은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접목이 중요한 사회복지교육에서 학습효과는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이타심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전공연계 봉사학습은 실천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직접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수월하다. 사회의 변화,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개입을 시도하여 의도한 변화를 성취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장래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효능감을 갖도록 하는데 유용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전공연계 봉사학습은 인간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수월하다. 사회복지학은 인간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고, 체계이론에 근거한 '환경속의 인간' 관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인간과 사회문제에 대하여 폭넓고 다양한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하는 내용과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사회복지전공연계 봉사학습에서는 지역사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보다 넓은 사회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유용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1) 연구방법과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전공과목과 봉사활동이 통합된 형태의 봉사학습을 통하여 학생의 개인적 성장측면과 교과학습측면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효과분석을 위해 학생의 개인적 성장 측면에서는 자기효능감,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교과학습측면에서는 교과목의 학습효과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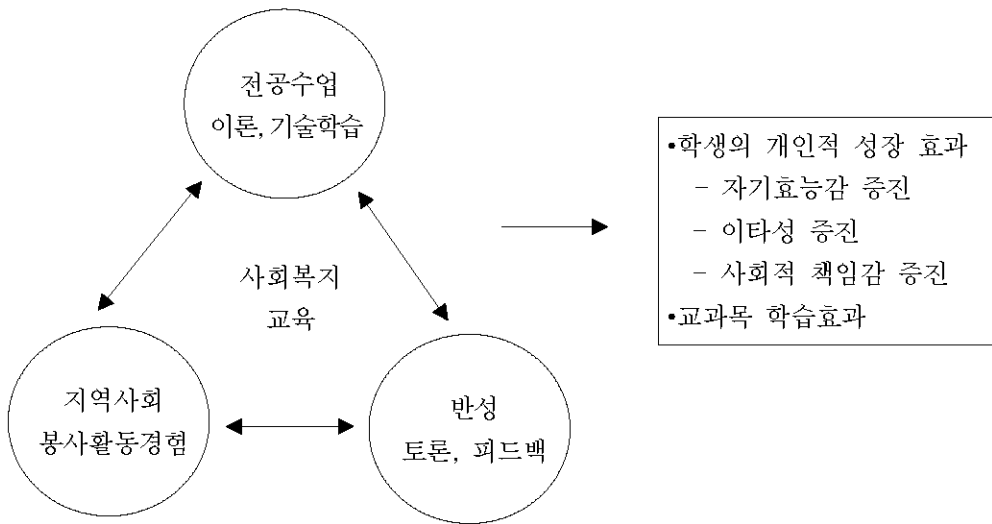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E대학 사회복지학전공수업인 가족복지론 과목에 2003년 1학기, 2004년 1학기, 총 2학기에 걸쳐 봉사학습을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2회의 수업은 동일한 교수의 지도로 진행되었고,

매번 박사과정의 수업조교 1명을 활용하였으며, 수강한 대학생은 각각 32명, 34명으로 총 66명이 참여하였다.

봉사학습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양적·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첫째, 양적 분석으로는 봉사학습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이타성, 사회적 책임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paired t-test로 분석하였고 학생들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변화를 검증하고자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봉사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효과에 영향을 준 요인을 비교분석하고, 학습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학생들이 봉사활동 후에 작성한 일지를 연구자 2인이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학생의 특성(학년, 전공)과 교수의 특성면에서 연구집단과 일정 정도 동질성을 갖는 비교집단을 선정하지 못한 것을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전공 연계 봉사학습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즉, 학생과 교수가 수업에서 이론, 기술적인 내용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이를 적용하면서 체계적으로 보다 깊은 사회적 함의와 봉사활동의 과정을 반성고찰하는 순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학생의 개인적 성장과 교과목의 학습효과를 성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림 1> 사회복지교육에서 봉사학습의 적용에 대한 연구모형

2) 연구과정

봉사학습의 적용은 다음의 <표 1>에 제시한 대로 준비, 교육, 경험학습 및 성찰, 평가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표 1〉 봉사학습의 진행과정 및 단계별 과업

| 수행단계 | 과업 | 수행방법 | 시기 |
|--------------|---|---|--------------|
| 준비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학습 관련 문헌연구 ·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관계형성 · 수업진행에 관한 토론 및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봉사활동기관 섭외 · 세부사항 기획 | 수업 전 2-3주 |
| 교육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복지 관련이론, 지식, 기술교육 · 봉사학습에 대한 이해 · 봉사, 지역사회에 대한 사전교육, 오리엔테이션 · 봉사기관과 자원봉사자 연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내용 강의 · 봉사학습과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봉사학습 간담회 | 수업 1-4주 |
| 교육-경험학습-성찰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복지 관련이론, 지식, 기술교육 · 봉사활동 수행 · 봉사활동에 대한 반성적 고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내용 강의 · 봉사활동일지 작성 · 집단토의 | 수업 5-14주 |
| 평가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학습 수행평가 (기관의 봉사담당자 참여) ·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 전체 수업에 대한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학습 간담회 · 설문조사 및 집단토의 | 수업 15주 |

(1) 준비단계

수업시작 전 준비단계에서는 가족복지 교과와 봉사학습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교과목과 봉사활동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논의하였다. 수업의 목표로서 학생의 개인적 성장 측면에서는 자기효능감, 이타성, 사회적 책임의 향상을 목표로 하였고, 교과학습측면에서는 ① 다양한 가족형태와 문제의 학습, ② 봉사활동하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족개입방법의 학습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관섭외가 중요한 과업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실험적으로 E대학 부속 2개 사회복지관을 섭외하였고, 2004년도에는 6개 기관을 섭외하여 실시하였다. 기관 섭외시 학생들의 오리엔테이션, 봉사활동 사례배정과 진행과정 관리, 평가에 대한 수업지침을 제공하여 기관의 봉사담당자가 봉사학습의 방법과 내용을 숙지하고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2) 수업진행 : 교과교육-경험학습 및 성찰-평가단계

수업은 본교의 시간표 편성원칙에 따라 주 2회로 각각 1시간 30분씩 진행되었다. 봉사활동과 수업이 동등한 비중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시간배분에 있어서도 주당 3시간의 수업(이론학습과 반성적 고찰)과 2시간의 봉사활동(경험학습)을 계획하였다.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의 실행에 봉사활동 1회당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주 1회 2시간 이상 총 10회 이상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봉사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강의계획서와 수업 첫 시간의 과목소개를 통하여 수업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

였다.

수업의 전반부는 주로 가족복지이론과 실천기술에 대한 학습과 봉사활동과 관련된 기본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족문제에 대한 이해, 가족개입에 필요한 지식과 상담기법, 가족역동과 가족치료, 봉사관련 기초교육 등이었다. 또한 가족문제 영역별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선정한 문제 영역에 대해 한 학기간 연구하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소집단 구성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족문제 중 관심영역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자가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 외의 영역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빈곤, 학대, 이혼, 알코올중독, 탈북, 장애 등의 문제 및 특성을 가진 다양한 가족을 만났으며, 소집단 구성과 봉사대상의 결정은 연구자와 학생의 관심, 기관과 봉사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수업의 중반부에서는 봉사활동이 진행되면서 매주 1회째 수업에서는 가족문제에 대한 강의 및 연구보고서 발표가 있었으며, 매주 2회째 수업에서는 봉사경험에 대한 반성고찰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봉사경험과 교육과정내용의 관련성 정도가 학습의 효과를 보고하는데 강한 예측요인이 되었다(Eyler and Giles, 1999)는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가족복지 교과내용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봉사내용은 대인봉사를 하되, 다양한 가족내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속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봉사로 한정하였다. 학생들은 기관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상 가족의 인테이크와 사정을 통해 봉사활동계획을 하였고, 그 내용은 주로 학습지도, 상담, 정보제공, 대상자와의 여가활동, 외출동행서비스 등이었다. 이러한 봉사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은 가계도와 생태도 작성을 통한 가족사정, 가족에 합류하거나 경계만들기 등의 기본적인 가족치료기법, 지역사회자원연결 및 가족과 환경의 상호작용촉진 등 수업시간에 배운 가족복지의 내용들을 봉사활동에 적용하였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의 세부 내용과 평가에 대해 일지를 작성하고 매주 2회째 수업시간에 교수로부터 수퍼비전을 받고 소집단토의를 통해 반성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반성고찰의 강도는 문제해결과 비판적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yler and Giles, 1999)고 보고된 바, 수업 후반부로 갈수록 팀별 토론 및 반성고찰에 더욱 큰 비중을 두었다.

(3) 지역사회와의 협력

봉사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다.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갖기 위해 학기시작 전 봉사활동 기관을 섭외하면서 기관의 책임자, 담당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봉사학습의 취지를 이해하도록 돕고 협력을 이끌어 내었다. 이 때 기관에서도 봉사학습을 통해 기관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기관과의 협력적 관계형성 후 다음 단계로서 학기 초 3-4주 경에 복지기관 담당자의 오리엔테이션, 정보제공, 사례연결이 이루어졌으며, 기관의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기관의 입장과 진행방식을 조정·협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기관의 담당자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관리·지도하였으며, 수업 조교와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봉사활동진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학기말 수업종료 시 기관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봉사학습에 대한 총평가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1)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능력과 사회적 관계에서 관계를 맺고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해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것으로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대인관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는 본래 30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7개의 허위문항을 제외한 2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7로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감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성 측정을 위해서는 Wrightman(1974), Berkowitz와 Lutterman(1968)의 도덕성 척도를 조학래(1996)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이타성은 개인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관심 등 9개 문항으로, 사회적 책임성은 사회에 대한 헌신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등 9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4이었다.

봉사학습에 참여 전후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 이타성, 사회적 책임감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PC 12.0 package를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1) 연구집단의 일반적 특성

전체 봉사학습 참여자는 66명으로 모두 여학생이었으며, 이 중 2학년은 2명, 3학년은 36명, 4학년은 28명이었다. 사회복지 전공자는 46명, 부전공자는 2명, 복수전공자는 18명이었다. 학생들은 본 연구의 수업에서 5-12회까지, 평균 8.94회의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 모두 사전에 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2〉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66)

| 구 분 | | 빈도 | 비율(%) |
|---------|-----------|-----|-------|
| 학년 | 2학년 | 2명 | 3% |
| | 3학년 | 36명 | 54.5% |
| | 4학년 | 28명 | 42.5% |
| | 합계 | 66명 | 100% |
| 전공 | 사회복지전공 | 46명 | 69.7% |
| | 사회복지 부전공 | 2명 | 3% |
| | 사회복지 복수전공 | 18명 | 27.3% |
| | 합계 | 66명 | 100% |
| 봉사활동 횟수 | 5-7회 | 12명 | 18.2% |
| | 8-9회 | 22명 | 33.4% |
| | 10-12회 | 32명 | 48.4% |
| | 합계 | 66명 | 100% |

2)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효과 분석 : 양적, 질적 분석

(1) 자기효능감

학생들의 봉사학습 참여 전·후에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자기효능감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사전평균 58.58에서 사후평균 60.15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전평균 21.21에서 사후평균 22.04로 증가하였으나, p 값이 .05로서 $p<.05$ 수준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되지 못했으나 관찰된 평균의 차이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표 3〉 봉사학습 참여 전·후의 자기효능감의 차이

(N=66)

| | 사전 | | 사후 | | t | p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 일반적 자기효능감 | 58.58 | 8.41 | 60.15 | 8.71 | 2.21 | .030* |
| 사회적 자기효능감 | 21.21 | 3.24 | 22.04 | 3.09 | 2.00 | .050 |

* $p<.05$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경험이 과업 계획과 수행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대인관계에서의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새로운 능력과 모습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년, 전공, 봉사활동횟수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학년, 전공, 봉사활동횟수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 | | N | 평균 | 표준 편차 | F | p |
|---------|--------|----|-------|-------|-------|------|
| 학년별 | 2-3학년 | 38 | 80.63 | 6.81 | 1.294 | .26 |
| | 4학년 | 28 | 82.14 | 15.02 | | |
| 전공별 | 사회복지전공 | 46 | 81.48 | 10.88 | 5.18 | .03* |
| | 복수/부전공 | 20 | 80.80 | 11.51 | | |
| 봉사활동 횟수 | 5-7회 | 12 | 80.67 | 16.77 | 3.00 | .057 |
| | 8-9회 | 22 | 79.73 | 7.98 | | |
| | 10-12회 | 32 | 82.56 | 10.32 | | |

* p<.05

<표 3-1>은 사전점수에서의 평균차이를 통제한 후, 봉사학습의 효과가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공분산분석(ANCOVA)의 결과이다. 학년, 전공, 봉사활동횟수에 따라 학생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공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과 복수/부전공 학생을 구분했을 때 봉사학습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학생들이 복수/부전공 학생에 비해 사회복지학습 관련 학습량, 봉사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짐작해 볼 때 이를 수업이나 봉사현장에서 강화하고 확인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비교적 더 높게 향상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이타성

학생들의 봉사학습 참여 전·후에 이타성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이타성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타성은 사전평균 66.21에서 사후평균 67.67로 증가하였고, p값이 .053으로서 .05수준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타성 역시 관찰된 평균의 차이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내용분석결과 학생들은 ‘이제부터 ○○와의 만남은 의무감보다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에 대해 문제를 발견하려는 관찰의 눈이 아닌 아이와 나의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등 타인을 돕는 보람을 경험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의 의미를 발견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효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봉사학습 참여 전·후의 이타성의 차이

(N=66)

| | 사전 | | 사후 | | t | p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 이타성 | 66.21 | 6.88 | 67.67 | 5.74 | 1.97 | .053 |

또한 학생들의 학년, 전공, 봉사활동횟수에 따른 이타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학년, 전공, 봉사활동횟수에 따른 이타성의 차이

| |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학년별 | 2-3학년 | 38 | 34.68 | 3.52 | 2.284 | .136 |
| | 4학년 | 28 | 34.57 | 4.03 | | |
| 전공별 | 사회복지전공 | 46 | 34.48 | 3.85 | .519 | .474 |
| | 복수/부전공 | 20 | 35.00 | 3.46 | | |
| 봉사활동 횟수 | 5-7회 | 12 | 35.83 | 4.24 | 3.163 | .049* |
| | 8-9회 | 22 | 35.45 | 2.70 | | |
| | 10-12회 | 32 | 33.63 | 3.95 | | |

* p<.05

이러한 봉사횟수에 따른 이타성의 차이가 어떤 집단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봉사활동 횟수에 있어서 1집단과 3집단간, 2집단과 3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사후검증 결과

| | 5-7회 (1집단) | 8-9회 (2집단) | 10-12회 (3집단) |
|-------------|------------|------------|--------------|
| 5-7회 (1집단) | | .857 | .004* |
| 8-9회 (2집단) | | | .004* |
| 10-12회(3집단) | | | |

* p<.0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봉사활동횟수에 따라 이타성의 변화에 차이가 있고, 봉사활동 횟수가 전체 평균인 8-9회를 초과한 학생들의 경우 이타성의 증진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수업과 병행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 횟수가 많은 학생들의 경우 과중한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점이 관찰된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사회적 책임

학생들의 봉사학습 참여 전·후에 사회적 책임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사회적 책임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회적 책임은 사전평균 31.79에서 사후평균 33.03으로 증가하였고, 이 변화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이었다($p<.01$).

<표 5> 봉사학습 참여 전·후의 사회적 책임의 차이

(N=66)

| | 사전 | | 사후 | | t | p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 사회적 책임 | 31.79 | 3.45 | 33.03 | 2.60 | 3.28 | .002** |

** $p<.01$

사회적 책임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타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 실천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각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년, 전공, 봉사활동횟수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5-1>과 같다.

<표 5-1> 학년, 전공, 봉사활동횟수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 차이

| | | N | 평균 | 표준 편차 | F | p |
|---------|--------|----|-------|-------|-------|-------|
| 학년별 | 2-3학년 | 38 | 33.21 | 3.07 | 5.942 | .018* |
| | 4학년 | 28 | 32.79 | 1.77 | | |
| 전공별 | 사회복지전공 | 46 | 33.17 | 2.87 | 1.379 | .245 |
| | 복수/부전공 | 20 | 32.70 | 1.84 | | |
| 봉사활동 횟수 | 5-7회 | 12 | 34.33 | 1.87 | 4.244 | .019* |
| | 8-9회 | 22 | 32.73 | 2.00 | | |
| | 10-12회 | 32 | 32.75 | 3.06 | | |

* $p<.05$

위의 <표 5-1>에서 알 수 있듯이 학년에 따라, 봉사활동횟수에 따라 사회적 책임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보다는 2-3학년에서, 봉사활동 횟수별로는 봉사활동 횟수가 5-7회인 경우에 사회적 책임의 향상이 있었다.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 감 증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이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이 증가한 것을 볼 때 봉사학습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유익한 경험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봉사횟수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 차이가 어떤 집단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봉사활동 횟수에 있어서 1집단과 2집단간, 1집단과 3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사후검증 결과

| | 5-7회 (1집단) | 8-9회 (2집단) | 10-12회 (3집단) |
|-------------|------------|------------|--------------|
| 5-7회 (1집단) | | .006* | .004* |
| 8-9회 (2집단) | | | .998 |
| 10-12회(3집단) | | | |

* $p < .05$

이타성과 마찬가지로 봉사활동 횟수가 많을 경우에 학생들이 수업과 봉사활동에 부담을 갖고 이것이 관찰된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점은 전공과 연계한 봉사학습을 계획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전공과 연계한 봉사학습에 있어서 개인적 성장 측면에서 자기효능감, 이타성, 사회적 책임의 영역에서 부분적으로나 유의미한 수준에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의 개인적 성장의 효과는 학년이나 전공과 같은 기본적인 인구학적 배경과 수업에서의 봉사활동횟수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결과를 볼 때 학생의 특성에 따라 개인적 성장 효과에 차이가 없는 몇 가지 항목의 경우, 역으로 학년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서 봉사학습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5) 개인별 봉사활동일지 비교분석

각 학생의 개인적 성장효과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서 유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일지에 나타난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 이타성, 사회적 책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던 학생과 거의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단, 변화를 보이지 않은 비교학생군 중 사전점수가 높아 사후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학생들은 제외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이타성, 사회적 책임 점수를 합산하여 사전 사후 점수차를 확인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상위 1/4에 해당하는 학생 중 3명과, 비교학생군으로 변화가 없었거나 부정적인 변화를 보인 하위 1/4에 해당하는 학생 중 3명을 선별하여 그들의 봉사활동일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뚜렷한 효과를 보인 학생들의 봉사활동과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봉사대상 가족유형과 학생의 개인적인 관심분야가 일치하였다. 빈곤, 폭력, 탈북, 알코올, 한부모, 조손 등 다양한 가족 유형 중에서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가족유형이 반영되어 적절하게 연결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관심과 욕구가 반영된 것은 봉사동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책임감을 더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봉사대상자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경험했거나 긍정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봉사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해 초기에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거나 감정적인 불쾌감을 나타

냈으나 점차로 행동문제의 원인을 가족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면서 가족의 영향력을 실감했다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이전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강점, 장점을 발견하고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해서 가족과 환경적인 영향력을 이해하게 되었고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현실감과 같은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사회적 책임감, 이타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가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가족 내의 의사소통,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적응, 역할 인식 및 강화와 관련되어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개입방법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혼가족으로서 가족구조의 변화와 적응에 대한 준비, 탈북을 도와준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자녀생활 개입유도, 왕따피해자인 자녀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개입유도를 시도하였다. 가족구성원과의 상담은 물론, 가족 지원 서비스 모색 및 연결, 외부체계 활용, 정보수집 등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은 자기효능감, 이타성,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키게 됨을 알 수 있다. 넷째, 반성고찰시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받은 경우였다. 이들은 반성고찰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의문점이나 논제를 개선하여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논의된 내용을 봉사활동시 적용한 것에서 수업의 유용성을 찾고 있었다. 특히, 반성고찰을 통해 자신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전문적인 개입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 그로 인해 봉사대상자와 가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자기효능감 증진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화가 거의 없었거나 오히려 부정적 변화를 보인 학생들의 경우, 봉사대상가족과의 연결에 있어서 기존에 관심있는 가족유형과 봉사대상가족의 특성간의 불일치성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따라서 초기부터 관심도와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봉사대상가족 연결시 개인의 욕구를 모두 반영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둘째, 봉사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몰이해와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아동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시간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또한 종결과정에서 봉사대상자의 불참과 무관심에 실망하고, 이를 봉사대상자와의 관계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봉사대상자 가족 전체에 대한 관점을 갖지 못하고 개인에 대한 개입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반성고찰 시간에 봉사활동을 통한 개입의 적절성, 봉사활동상의 갈등, 봉사현장의 의문점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토론시간에 학생들의 논의주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토론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따라서 수업시간에 모든 질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불만으로 지적하였고, 결과적으로 반성고찰 시간이 자신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6) 교과목 학습효과

본 연구에서는 66명의 학생들의 봉사활동일지를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교과목 학습효과를 도출

하였다. 먼저, 연구자 2인은 봉사일지를 면밀하게 읽고 교과목 학습효과라고 판단되는 의미있는 문장을 선택한 후 텍스트의 의미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범주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의미있는 텍스트로 합의한 총 323개 문장에 대해서 각자 범주화하여 총 229개가 동일범주에 속하여 70.8%의 비교적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연구자간 합의되지 않은 텍스트들은 2차에 걸친 범주화 합의과정을 거쳐 총 263개의 일치도(81.4%)를 보였다. 그리하여 상호배타적인 상위범주로서 ‘가족복지 실제적용’, ‘가족복지이론 학습효과’, ‘가족복지전반에 대한 관심’, ‘가족구성원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상호배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하위범주로 세분화하였다. ‘가족복지 실제적용’은 가족문제에 대한 개입과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문제확인, 개입계획과 개입실천 등이 한 문장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세분화하지 않았다. ‘가족복지이론 학습효과’는 ‘가족복지이론에 대한 이해증진’, ‘가족복지이론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가족복지이론의 유용성에 대한 깨달음’으로 구분되었고 ‘가족복지전반에 대한 생각’의 하위범주는 ‘가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가족복지의 필요성 인식’, ‘가족복지실천기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구성원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각’의 하위범주는 ‘편견감소’, ‘강점인식’, ‘존엄성인식’, ‘클라이언트와의 공감의 필요성인식’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교과목 학습효과 : 질적 분석

| 범 주 | 구체적 내용 |
|---|---|
| 가족복지 실제적용 (119) 가족문제에 대한 개입과정을 실제적용 ①가족문제 확인 ->②개입계획 ->③개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이는 가족들의 관심과 지원부족 때문에 방과 후에 친구들 집에서 놀고, 아침이나 저녁식사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있어 방임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공부방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가족이 늘어나는 새로운 상황에서 OO가 학습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 가족(새아빠 포함)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대화를 해 보라고 권유했다. 어린이날에.... 공유하는 추억을 만드는 방법을 권유했다. - OO이의 시력이 나쁜 것을 발견하고 교정하도록 조언해 주었다. 가족의 지지를 받기 위해 OO이의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 이론적으로 배운 종결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론적으로 배울 때 쉬웠던 내용이 실천상에서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 이제야 배운 것이 조금씩 머리에서 손으로 옮겨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더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표 6〉 이어서

| 범 주 | 구체적 내용 |
|----------------------------|---|
| 가족복지이론에 대한 이해증진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그냥 글로서 끝나는 것 같은데, 봉사를 함께 하니 전체를 볼 수 있었다. 한 아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가족 체계를 볼 수 있었다. - OO이 형을 통해 가족의 역동성과 환경을 더 잘 알 수 있었다. - 가족들의 상황을 끌어내고 이야기하면서, 가족과의 관계 등을 이야기 하면서 가족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면서 가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절감할 수 있었다. - 가솔하는 엄마와 아이와의 애착과 애증의 관계... 방임되고 있는 상태, 주 양육자인 할머니와의 관계 등 가족의 역동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었다. - 단지 책에서 본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였을 뿐 현실이 어떤 건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다. - 사실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 전에 알던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
| 가족복지이론 학습 효과 (4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이언트의 마음상태를 내가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을 알면, OO이의 마음을 좀더 알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 대상자의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수업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 관심 있는 대상을 찾아가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다음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서 가족에 대한 더 전문적인 개입을 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
| 가족복지이론 수업의 유용성에 대한 깨달음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간에서의 깨달음은 ct와의 만남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의 자세를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다. - 이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 수업시간의 활발했던 질의응답의 시간들은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험과 지식을 쌓는 기회가 되어주었다. |

〈표 6〉 이어서

| 범 주 | | 구체적 내용 |
|--------------------------|--------------------------|---|
| 가족복지 전반에 대한 관심 (54) | 가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기회를 통해 빈곤, 이혼, 알코올 중독 가정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회문제는 그저 '사회'의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 제도라는 틀 안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적절히 파악해내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
| | 가족복지 필요성 인식 (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에서 발생하고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복지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다. - 생각보다 가까이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많다는 생각을 하였다. |
| | 가족복지실천기관에 대한 문제의식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이라는 곳은 이 지역 주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척이나 근본적인 의구심이 마음 한 구석에... - 복지관은 낙인 덩어리가 될지도.. - 내가 생각해 왔던 것처럼 사회복지관이라는 곳은 그렇게 적극적인 곳도 아니고, 개개인에게 모두 신경 써 줄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가진 곳도 아니기 때문이다. |
| 가족구성원(client)에 대한 생각(42) | 가족구성원의 강점 인식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는 클라이언트가 많이 무력해 보였으나 만나면서 강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 OO이의 이런 모습이 처음에는 가까이 대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리더쉽이 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
| | 가족구성원의 존엄성 인식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는 클라이언트가 지닌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 문제 이전에 '인간'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았었는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
| | 가족구성원과의 공감의 필요성 인식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마음을 열기까지 많은 노력과 애정이 필요한 것 같다. - 클라이언트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보살피고 돌아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클라이언트의 필요와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따뜻한 관심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 가족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편견 감소 (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가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처음의 생각이 변화되었다. - 클라이언트 역시 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혼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다. |

학생들의 봉사활동일지를 내용 분석한 결과, 봉사학습의 학습효과는 첫째, '가족복지실체적용'으로서 학생들은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을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개입을 계획하고 실천적 개입을 실시할 수 있었다. 가족복지론 수업은 실천력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기 때

문제 가족에 대한 개입을 실천한 것 그 자체는 하나의 경험학습이 된다. 문제확인, 개입계획, 개입실천의 3단계 모두에서 이론적인 학습내용을 적용하게 되고, 이에 실천력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족복지이론 학습효과'로서 수업시간에 학습한 가족복지이론을 봉사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고, 봉사현장에서 학생들은 그들이 진짜 문제(real problem)를 개인적으로 좀 더 중요하게 지각하면서 가족복지이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학습의 동기가 증진되고 이론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셋째, '가족복지 전반에 대한 생각'으로서 학생들은 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만나면서 사회에 만연한 가족문제를 실감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으로서 가족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보면서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넷째, '가족구성원(client)에 대한 생각'으로서 학생들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는 편견이 감소되고 장점을 발견하게 되는 변화가 있었고, 문제 중심보다는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클라이언트 개인과 환경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봉사학습이 윤리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며, 타인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장애가 되었던 편견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Boss, 1994)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1) 요약

봉사학습은 전공교육과 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새로운 경험적 학습의 한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교수방법으로서의 봉사학습은 모든 학생, 모든 과목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공수업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자기효능감, 이타성, 사회적 책임감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교육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교과지향적인 학습이나 실습, 인턴십의 형태와는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 것³⁾으로 사회복지 전공교육에 적용했을 때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차원에서는 시민적 책임감과 전문적인 능력을 겸비한 사회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치와 실천의 학문인 사회복지학 전공교육에서 이론과 실체를 연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체득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봉사학습의 실증적인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봉사학습을 사회복지 전공교과과목인 가족복지론 수업에 2학기에 걸쳐 적용하여 그 경험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 개인적 성장 측면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책임이 각각 $P<.05$, $P<.01$

3) 차이점에 대해서는 p.7에서 언급하였음. 봉사학습에 참여한 한 학생의 의견에 의하면, 실습은 직업인으로서, 전문가로서 미리 업무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봉사학습에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더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이타성은 근소한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향상은 아니었지만 관찰된 평균의 차이를 볼 때는 상당한 수준의 향상이 있었다. 아울러 학년별, 전공별, 봉사활동 횟수에 따라 개인적 성장 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는데,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이 사회복지학을 복수/부전공하는 학생과 비교할 때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컸으며, 학년별로는 2-3학년 학생이 사회적 책임의 향상이 상대적으로 컸다. 봉사활동 횟수에 따라서는 전체 평균인 9회보다 적은 집단이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의 향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업과 봉사활동의 부담으로 인해 봉사활동 횟수가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봉사활동에 충실하게 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개인적 성장 효과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인 학생들의 봉사일지를 분석한 결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관심분야와 봉사대상가족유형이 일치하는가, 봉사대상자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였거나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가족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는가, 수업 중 반성고찰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했는가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점들은 추후 전공연계 봉사학습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교과목 학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봉사일지를 내용분석 한 결과, 개입과정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기회가 된 점, 이론에 대한 이해와 동기가 증진되고, 과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클라이언트 개인과 가족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고 장점을 발견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족복지이론을 실제에 적용해 본 경험과 이론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 그리고 학습동기의 증가는 가족복지론 수업의 학습목표와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봉사학습이 학습목표성취를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점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전공과목에서 기대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2)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공교육에 봉사학습을 적용했을 때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학습이 보다 다양한 교과목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학생-기관이 봉사학습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봉사학습의 철학, 원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봉사학습은 진정한 봉사학습이라고 할 수 없다. 교수는 교과목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업 내용과 봉사활동방법에 대하여 학생과 봉사활동기관에게 명확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구조화함으로써 교수, 학생, 기관 3자가 봉사학습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업운영면에서 봉사를 교과과정에 통합하여 정규과목의 지식적 배경을 바탕으로 준비(Preparation)-실행(Action)-반성고찰(Reflection)의 순환과정으로 운영하며, 봉사와 학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적 성장 효과가 큰 학생들의 경우 반성고찰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을 다시 봉사활동에 적용한 특징이 있었다. 다른 수업과 달리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지는 역동적인 수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수업시간 내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정해진 수업시간 외에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전공과 연계한 봉사학습을 계획할 때, 본 연구의 결과 4학년보다는 2-3학년 학생들에게 개인적 성장효과가 컸고, 봉사활동 횟수가 많이 요구될 때 학생들의 부담이 커져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복수/부전공 학생에 비해 사회복지 전공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이 컸다는 것은 전공학생에게는 실습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학생들이 실천력을 키우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다양한 사회복지교과목에 봉사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복수/부전공자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수업교과는 이들을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반성고찰과 봉사활동시간에 밀도있게 개입하며 개인별로 능력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단기간에 변화가능한 영역에서 개입목표를 설정하여 성취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봉사영역과 학생들의 관심분야가 일치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봉사 대상 혹은 영역을 연결할 때 학생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특별한 관심영역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섭외하거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기관과 접촉하도록 기회를 주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다.

여섯째, 학교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봉사학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비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내 지원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지도교수의 봉사학습에 대한 강한 의지로 적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봉사학습의 효과를 공유하고 확대적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타 교과목에 비해 봉사학습을 적용한 교과목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레코딩 등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추가학점을 부여한다거나 교과목의 평가방법을 봉사학습형태에 적합하도록 개선, 보완하는 점 등은 학교차원에서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기연구에서는 기존의 강의중심의 수업과 봉사학습을 적용한 수업 간의 비교연구, 과목에 따라 다양한 봉사학습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 등을 통해서 보다 면밀하게 봉사학습의 효과를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미혜, 1997. "사회봉사와 전공학문을 연계한 봉사학습에 관한 연구-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덕성여대논문집』 제 28집.
- 김통원·김혜란, 2001. "대학생 봉사학습에 관한 실증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7: 148-177
- 대학사회봉사협의회, 2003. "봉사학습강화와 대학사회봉사활동 지원". 사회봉사교직원 워크숍자료.

- 조용하. 2002. 『대학봉사학습의 동향과 과제』.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Boss, J. A. 1994. "The effect of community service work on the moral development of college ethics student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3(2): 183-198.
- Bringle, R. G. and J.A. Hatcher. 1996. "Implementing Servic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67: 221-223.
- Cohen, J., and D. F. Kinsey. 1994. "Doing good and scholarship: A Service-learning study." *Journalism Educator* 48(4): 4-14.
- Conrad, C. and Hedin, D. 1992. "The service importance of experiential education on adolescents development." *Child and Youth Services* 4: 57-76.
- Eyler, J., D. E. Giles and J. Braxton. 1997. "The impact of service-learning on college students."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learning* 4: 5-15.
- Eyler, J. and D. E. Giles. 1999. *Where's the Learning in Service-Learn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Furco, A. 1996. "Service Learning: A Balanced approach to experiential education." in *Expanding boundaries: Service and Learning*. The Cooperative Education Association.
- Giles D. E. and J. Eyler. 1994. "The impact of a college community service laboratory on students' personal, social and cognitive outcomes." *Journal of Adolescence* 17(4): 327-339.
- Gist, M.E. and T. R. Michell. 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 183-211.
- Hervani, A. and Helms, M. M. 2004. "Increasing Creativity in Economics: The Service Learning Project." *Journal of Educational for Business* May/June.
- Hesser, G.. 1995. "Faculty Assessment of student learning: Outcomes attributed to service-learning and evidence of changes in faculty attitudes about experiential education."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learning* 2: 33-42.
- IASSW and IFSW. 2004. Global Standards for Social Work Education and training.
- Kendrick, J. R., Jr. 1996. "Outcomes of service-learning in introduction to sociology course."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Learning* 3: 72-81.
- Kolenko, A., Porter G., Wheatly, W. and Colby, M. 1996. "A critique of service learning projects in management education: Pedagogical foundations, barriers, and guidelin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 133-142.
- Mabry, J. B. 1998. "Pedagogical variation in service-learning and student outcomes: how time, contact and reflection matter."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learning* 5: 32-47.
- Markus, G. B., Howard, P. F. and King, D. C. 1993. "Integrating Community Service and Classroom Instruction Enhances Learning: Results From an Experi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5(4): 410-419.
- McCluskey-Fawdett, K., P. Green. 1992. "Using community service to development psychology." *Teaching of Psychology* 19(3):150-153.
- Miller, J. 1993. "Linking traditional and service learning courses: Outcome evaluations

- utilizing two pedagogically distinct models."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learning* 1(1): 29-36.
- Myers-lipton, S. J. 1996. "Effect of comprehensive service-learning program on college students' level of modern racism." *Michigan Journal Community Service-learning* 3: 44-54
- S. D. Friedman. 1996. "Community involvement projects in Wharton's MBA curriculum."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 95-101.
- Sugar, J., and M. Livosky. 1988. "Enriching child psychology courses with a preschool journal option." *Teaching of Psychology* 15(2):93-95.
- Tucker, Mary L. and McCarthy, Anne M. 2001. "Presentation Self-Efficacy: Increasing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Service-Learning."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13.
- Weigert, K. M. 1988. "Academic service-learning: Its meaning and relevance." pp.3-10. in *Academic Service-Learning: A Pedagogy of Acting and Reflection*, edited by R. A. Rhoads, and J. P. F. Hawar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Williams, N. R., King, M., and Koob, J. J. 2002. "Social Work Students Go to Camp: The Effects of Service Learning on Perceived Self-Efficacy." *Journal of Teaching on Social Work* 22:55-70.
- Zlotkowski, E. 1998. *Successful Service-Learning Programs*. Bolton, MA:Anker Publishing Company, Inc.

Implementation of Service-Learning for Social Work Education

Han, In-Young
(Ewha Womans University)

Park, Hyung-W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Kim, Ju-Hyun
(Ph. D. Candidates, Ewha Womans University)

While the endeavor to introduce the service activity in the college education is enlarged,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service learning in social work education. The 'Service-Learning' is focusing on the practical education, the liaison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and the promotion of civil awareness which are very important in social work education that focuses on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human and social problem as practical study.

This study contemplates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course of social work combined with service learning. This study verifies the change of the self-efficacy, the altruism, social responsibility as personal growth of students by carrying out the course of social welfare and service activities side by side. To investigate the learning effect qualitative analysis in journal of service activity was done.

Through the service learning, students showed the promotion in self-efficacy, social responsibility. And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it was found that students could participate in the intervention of family problems, could have lots of understanding of theory, could increase the interest of family welfare, could experience a change of perception about the client.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esults, this study address that Service-Learning is useful teaching methodology in social work education to accomplish the personal growth of students and promote the learning effects.

Key words : Service-Learning, Social work education

[접수일 2005. 3. 7. 게재확정일 2005. 6. 7.]